



[경제종합]  
더 길고 더 넓게  
車 트렌드  
대형화·전동화 뚜렷  
04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80.33  
(+5.68)

코스닥  
744.96  
(+15.42)

금리  
(국고채 3년)  
3.753  
(-0.097)

환율  
(원·달러)  
1317.60  
(-8.30) (15일)

# 이재용, 글로벌 거물 잇단 회동… ‘뉴삼성’ 네트워크 강화

〈삼성전자 회장〉

한국 찾는 나델라 MS CEO와 만나 XR·메타버스 등 미래먹거리 논의 베링크 ASML CEO도 회동 예정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차담회 신도시 네옴시티 사업 협력 기대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승진 후 처음으로 유력 인사들과 잇딴 만남을 갖는다. JY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재가동하면서 글로벌 위기 극복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사티아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를 만났다.

나델라 CEO는 한국 MS 개발자 행사 ‘マイクロソフト 이그나이트 스포트라이트 온 코리아’ 기조연설을 위해 방한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티아나델라 MS CEO, 피터 베링크 ASML CEO,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했다.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 회장은 2018년에도 국내에서 나델라 CEO와 만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미

국 출장 중 나델라 CEO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나델라 CEO는 취임 후 삼성전자와 갈등을 해소하며 협력을 이끈 주인공, 이 회장과 관계도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와 MS는 IT 업계에서 애플 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동맹으로 평가받는다. 갤럭시와 윈도우즈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며 소비자 편의성을 극대화했고, 클라우드와 오피스를 통해 안드로이드 진영 활용성도 높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과 나델라 CEO가 이번 회동을 통해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품팩터는 물론이고 최근 주목받는 확장현실(XR)과 메타버스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

상된다.

이어서 이 회장은 16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리는 ASML 뉴 캠퍼스 기공식에 참가해 피터 베링크 CEO도 만날 예정이다.

ASML은 첨단 반도체 필수 장비인 EUV를 만드는 유일한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ASML이 있는 네덜란드는 이 회장이 유럽 출장에서 빼놓지 않는 방문지 중 하나다.

이 회장과 베링크 CEO 역시 인연이 깊다. EUV 장비를 처음으로 도입했던 게 삼성전자, 2012년에는 전략적 지분 투자도 했다.

이 회장이 ASML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연 EUV 장비 수급이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금융산업 족쇄 금산분리 대수술 부수업무·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비금융 분야까지 사업 완화 등  
‘빅블러 시대’ 맞게 유연 대응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가 진출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비금융 분야로 늘리고, 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금융회사도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업권에서도 시대에 맞게 제도를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금산분리 제도개선…3가지안 검토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가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산분리제도는 금융자본(금융회사)과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을 분리시키는 제도로 소유지배 제한, 영업행위 제한, 의결권 제한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법에서 허용하는 부수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선안은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과 ▲네거티브(Negative)로 전환한 뒤 위험 총량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부수업무는 포지티브·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나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 발생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현재 국민은행의 리브엠 통신사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특례를 받아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앞으로는 혁신성이 인정되고, 다른 금융회사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면, 부수업무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것. 이 방식은 업종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금융회사가 비금융업에 집중하거나 본업과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을 운영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지만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때마다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네거티브(Negative)로 전환하는 방안은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식이다. 단, 이 방안은 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관련이 없는 비금융업을 운영할 경우 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한·중 정상이 지난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에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7차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뉴시스 사진 합성.

## 尹대통령-시진핑, 3년 만에 韓中정상회담

G20 식량·에너지 안보 1세션 발언  
“과도한 보호주의 자제, 힘 모아야”

제17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식량·에너지 위기를 해결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한중 정상 간 회담도 확정되면서 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과 최근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대면회담도 이뤄졌다. 한중 정상 간 만남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의 양자 회담 이후 3년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식량·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1세션 발언을 통해 “식량·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를 자제해야 한다”며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08년 첫 번째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무역과 투자 장벽의 동결(stands still)’에 모든 회원국이 동참했던 것을

언급하며 “글로벌 식량·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녹색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에너지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식량·에너지 분야의 녹색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녹색기술의 개발과 공유에 G20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5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버스티비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 총리 “안전한 일터, 어떤 가치보다 중요… 필요한 조치 할 것” /사진 뉴시스

▲ 민주 ‘與, 민생만 긴축예산… 민생 예산 확충·국조 서명 33만명’

▲ 안철수 “野 김건희 행보 비난, 너무 소모적인 논쟁 아닌가”

▲ 與 과방위 “빈곤 포르노” 장경태, 과방위 즉각 사퇴해야



▲ 검찰 “민주당 대장동 수사팀 고발 유감… 정치적으로 몰고가” /사진 뉴시스

▲ G20 정상들, 尹 대통령 만나 “이태원 참사 애도”